

# 외식 줄고, 간편식 늘고... 프랜차이즈도 HMR '눈독'

(가정간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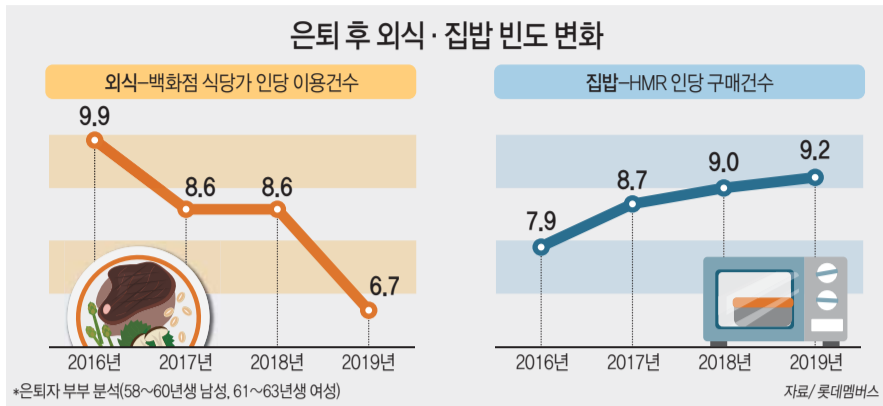
1인·맞벌이 가구 증가에 HMR 성장 시장 규모 3조... 10년새 10배 ↑ 은퇴자 부부 HMR 구매 16% 늘어

외식산업경기지수 매년 줄어들어 교촌치킨·설빙 등 HMR시장 가세

최근 외식이 줄고 가정간편식(HMR) 소비가 늘어나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도 이에 발맞춰 연이어 HMR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HMR 시장 규모는 2008년 2588억 원에서 2018년 3조300억 원으로 10년 새 10배가량 성장했다. 업계는 HMR 시장이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올해 4조 원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HMR 시장은 1인·맞벌이 가구의 증가,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등장했다. 저렴하고 간편한 조리방식, 다양한 종류의 제품(피자·짜개·안주 등)이 출시됨으로써 시장이 성장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은 2017년 28.6%(562만 가구)를 차지했다. 2035년에는 815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HMR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벌이 가정과 중장년층 가구까지 저변을 넓히고 있다.

장년층 은퇴자 부부 집단의 집밥 빈도도 늘어났다. 롯데멤버스의 엘포인트(L.POINT) 거래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가정간편식 인당 구매금액은 2016년 대비 약 16%, 이용 건수가 1.3회 늘었다. 특히 남성은 여성보다 증가

폭이 컸으며, 인당 구매금액이 17%, 구매 건수가 평균 1.5회 많아졌다. 백화점 식당가 이용은 2016년(9.9회)에 비해 지난해(6.7회) 33% 감소했다.

반면 외식업은 침체한 분위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외식산업경기지수는 2014년 71.91에서 2018년 67.51, 2019년 4분기 65.68로 떨어졌다.

이렇게 외식 소비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외식업계는 HMR 시장으로 눈을 돌려 새로운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교촌치킨은 지난해 3월 오픈마켓에 처음 선보인 '닭갈비 볶음밥'이 호응을 얻자 올해 하반기에는 자체 온라인몰을 구축하고 다양한 HMR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BBQ도 2017년 자체 쇼핑몰 '비비큐몰'을 오픈하고 삼계탕과 닭가장 등 닭을 활용한 HMR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홍콩반점0410'의 메뉴를 앞세워 지난해 HMR 시장에 진출했다. 첫 HMR 상품으로 출시된 홍콩반점0410 해물육(육)교자는 해물과 돼지고기를 채운 왕교자로 홍콩반점0410 매장에서 출시된 메뉴다. 오징어와 새우를 갈지 않고 다져 넣어 식감을 살린 점이 특징이다.

더본코리아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 제품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기존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인기 메뉴는 물론 백종원 대표의 노하우를 담은 다양한 자체 개발 상품도 HMR 상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설빙은 지난 14일부터 약 2주간 전국 설빙 10개 매장에서 간편식 '설빙 밀(S

ULBING MEAL)' 4종과 음료 등을 선 공개한다. 설빙 밀은 '베이컨크림스파게티', '로제스파게티', '눈꽃볶음밥', '짜장게티' 등 4종으로 구성됐다. 설빙은 이미 빙수 외 메뉴인 '매콤쌀떡볶이', '감파스타', '피자' 등을 간식 메뉴로 선보인 바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포화상태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으로 HMR을 출시하는 추세"라며 "HMR 시장은 이미 식품 대기업들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프랜차이즈 업체는 각 브랜드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야 더욱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PB상품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지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지 중요한 요소인데 다른 유통 채널에서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신성장 동력 사업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 15년만에 뜯어고치는 게임법... 역차별 우려

문체부 '게임산업 재도약 토론회' 법률제정 '게임사업법' 변경 제안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등 총력전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15년 만에 '게임법'을 전면 개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게임사업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간 규제에 방점을 찍은 법률 방향을 진흥과 육성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법 개정안에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해 향후 치열한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우선 법률제정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게임사업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제안됐다. 개정안에서는 '게임물'이라는 용어를 '게임'으로 변경하고 사행성 게임,



김용삼 문체부 차관이 18일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중독, 도박 등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는 표현을 삭제한다. 또 PC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온라인게임으로 통합해 '온라인게임제공사업'을 신설하고 '게임문화의 날',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게임산업진흥단지 조성 등을 할 수 있도록 설립 근거를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확률형아이템 등에 표시의무를 보완하고, 외국 게임제공사업자로부터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율적인 분쟁조정제도도 신설한다.

협회 측은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게임 관련 전문가 등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하이트진로, 美 판로 초석 다진다



기업설명회 등 투자활동 촉진

하이트진로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해외 기업설명회(NDR)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간 뉴욕, 보스턴 등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 해외 IR을 진행한다. 이번 해외IR 일정에는 김인규 사장이 참여해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해외 시장에서의 인지도 확장과 기업가치 제고는 물론 해외 투자자들의 이해 증진을 통해 투자활동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 경영실적을 설명하고, 지난해 출시한 '테라', '진로'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발포주 '필라이트'를 포함한 국내시장 현황과 해외 시장 성장추세 등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해외 기업설명회(NDR)를 위해 미국을 찾은 김인규 하이트진로 사장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맨해튼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이트진로는 두 신제품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7년 만에 매출 2조원을 돌파하며 턴어라운드 성공했다. 하이트진로의 2019년 매출액은 2조3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성장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지난해 기틀을 마련한 새로운 성장기반을 투자자들에 적극 설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신뢰를 쌓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해 하이트진로의 기업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 기아차·휴앤쇼핑 등 기업 신입 채용

잡코리아, 신입공채서비스

기아자동차, 현대중합금속 등이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SPC삼립의 경우 재경, 디자인, 영업 등 각 부문에서 정규직전환형 인턴사원을 채용 중이다.

18일 잡코리아 신입공채 서비스에 따르면, (주)휴앤쇼핑, 현대중합금속(주), 전남도시가스, (주)SPC삼립, JW중외

제약, 기아자동차(주), 교원그룹, GS엔비즈(주) 등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기아자동차는 각 부문 신입사원 상시 채용을 진행 중이다. 모집부문은 기업 전략(미래 신규 사업 개발/추진), 홍보(인론홍보), 글로벌사업관리(해외사업 관리, 상품기획/운영), 방산/군수(군용 차량 전기/제어장치 개발 및 설계 등) 각 부문이다.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등

은 모집 부문별로 상이하다. 전형절차는 지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 1차 면접전형(온라인 인적성 검사 포함), 2차 면접전형(채용 면접 포함),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지원은 기아자동차 채용포털에서 가능하며 기업전략 부문은 2월 21일, 홍보, 글로벌사업관리 부문은 2월 23일, 방산/군수 부문은 2월 16일에 입사지원 마감된다.

기타 국내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 신입 채용 일정은 잡코리아 신입공채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

## '수소연료' 기반 건설기계 개발 나서

현대건설기계·현대자동차그룹, 맞손

현대건설기계가 현대자동차그룹과 손잡고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중대형 건설기계 개발에 나선다.

현대건설기계가 경기도 용인시 마북연구동에서 현대차, 현대모비스와 함께 수소지게차 및 중대형 수소굴삭기를 개발하는 내용의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공동개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파워팩을 포함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의 설계와 제작을 진행하고, 현대건설기계가 이를 적용한 굴삭기 및 지게차의 설계와 제작, 성능평가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2023년부터 관련 제품들을 양산해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의 기존의 디젤엔진 기반 장비와 달리,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한다. 유해가스가 전혀 발생되지 않아 최근 친환경 장비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건설장비 시장에서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